

지역 소식통

정읍시, '정읍 맛집' 참여 업소 모집

정읍시가 관광객 유치와 미향(味香) 정읍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맛집을 모집한다.

정읍 맛집 신청 대상은 정읍시에 영입 신고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이다.

최근 2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 편의점과 PC방 내 휴게 음식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맛집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 식품위생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업소에 대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음식의 맛, 위생 환경,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소는 지정증과 맛집 표지판 부착,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 자금 융자 우선지원,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홍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논 이모작 직불금 투입 1760명 농가 혜택

정읍시가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논 이모작 직불금' 24억원을 지급한다.

논 이모작 직불금은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귀리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2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며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ha당 50만원이며,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 등의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이 지급된다.

다만, 경작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농업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자랑스런 고창을 만듭니다

나눔·봉사·기부의 뜻으로... 2022년 명예의 전당 운영

고창군청 1층 현관에 마련된 명예의 전당에 나눔과 봉사 기부의 높은 뜻을 알리기 위한 새로운 얼굴들이 나타났다.

8일 고창군은 '고창군 명예의 전당' 관련, 새롭게 100명을 선정해 2022년 고창군 명예의 전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나눔과 봉사 기부의 100개의 열매를 상징하는 현액패가 나무의 가지에 각각의 소중한 얼굴들과 활동사진 등으로 새롭게 구성돼 풍성하게 열렸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앞장서며 방역 물품전달봉사와 장애인가정방문

봉사 등 총 844시간의 봉사활동을 전개한 사회단체,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514시간의 누적봉사시간을 달성한 단위 지역사회보상협의체, 매년 다각적인 사회환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웃돕기 우수기업, 2019년부터 돼지

저금통에 용돈을 모아 기부한 남매 등 다양한 나눔과 봉사 기부로 고창을 빛내고 있는 열매가 되는 대상자들이 현액됐다.

고창군수는 "나눔과 봉사 기부의 고귀한 뜻으로 자랑스런 고창을 만들고 계시는 분들을 고창군 명예의 전당을 통해 널리 알릴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과 봉사 기부의 뜻을 펼치는 숨은 군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그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군민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고창군 명예의 전당은 '자원봉사, 이웃돕기, 숨은 나눔과 봉사자, 사랑기우기, 문화예술' 5개분야 100명을 고창군 명예의 전당에 1년간 현액하여 운영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이 고창읍 월곡리에 건립 중인 (가칭)고창군립중앙도서관의 명칭을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공모한다.

"우리지역 도서관이름 지어주세요"

고창군, 군립중앙도서관 명칭 공모

고창군이 고창읍 월곡리에 건립 중인 (가칭)고창군립중앙도서관의 명칭을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공모한다.

건립될 도서관은 낮은 건물 높이와 비대칭적인 지붕이 내는 착시효과로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살렸다. 기존 어디에도 없는 도서관의 형태를 갖춰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100년 뒤에도 역사적 가치와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복합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설계를 맡은 유현준 건축가(홍익대 교수는 큰 나무 아래서 책을 읽는 느낌을 내기 위해 도서관을 목구조로 설계했다.

단일 건물로는 가장 긴 100m에 가까운 기다란 박공지붕에 친환경 태양광 전지를 얹었다.

도서관은 3월 착공해 2년 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람을 모이게 하고 소용하게 만드는 건축의 힘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명칭 공모는 고창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된 명칭을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의거(고창군의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 상징성, 창의성을 반영한 참신하면서도 기억하기 쉬운 명칭) 후보자를 선정하고, 국민 설문 조사를 거쳐 당선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명칭 당선자는 부상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공모 참여는 신청서를 고창군 및 군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직접 방문(고창군립도서관) 또는 우편, 이메일(ksm7758@korea.kr), FAX(063-560-8060)로 제출하면 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군청 및 군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창군립도서관(☎063-560-8076)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적극행정 빛났다!... 애로 해소 우수사례 선정

정읍시, 재산권 행사 어려운 공유(지분)토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결

정읍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 우수 지방자치단체 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2021년 3분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간편하고 쉬운 소 브루셀라 우 결핵 채혈 신청'을 통해 신규사례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우수사례 선정으로 명실상부 규제개혁 우수자치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공유토지를 개인 자분에 따라 토지 분할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시에 따르면 토지의 매매, 상속, 증여, 건축행위 등 다양한 이유로 공유

지분 토지가 증가함에 따라 실제 점유토지 경계가 불분명해 소송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이에 따른 민원 또한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소유자 개별 면담과 현장 방문을 진행하고 관련법의 적극적인 해석과 적용을 통해 토지 분할이 불가능한 공유토지를 개인 자분에 따라 분할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 과정에서 규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관련법 적용으로 토지 공유자 간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었던 사례를 해결하는 등 시민의 갈등 해소에도 크게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성과는 시정을 믿고 협조해 주신 시민들과 적극

적인 행정문화 확산에 동참해준 직원들이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규제는 무엇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 생활 불편과 소상공인 애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2021년 4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는 총 470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5건이 선정됐으며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정읍시가 선정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미등록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미등록 불법 지하수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을 말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하여 전국적으로 동일 기간을 정하여 진행 중이고 읍·면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다.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청정 지하수 보존을 이룩함으로써 군민이 편히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군민들의 지하수에 대한 애정과 주인의식이 부안군의 수질 보존에 크게 기여하기에 적극적인 신고 및 등록이 필요하다.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진신고 대상 지하수 시설에 한하여 비용부담과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 지

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시설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하여 드릴 예정이다.

부안군 윤상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하수 담당 직원 및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 중이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부안군 전역에 대해 모든 지하수를 양성화하기에는 한계점이 많아 부안군의 청정 지하수 보존을 위해서는 부안군민들의 적극적인 지하수 신고 및 등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정일윤 식초연구가 '발효식초의 이해' 특강

'대한민국 식초문화도시' 전폭 고창군이 식초연구가 정일윤 대표를 초청해 '고창과 식초'를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7일) 오전 군청 5층 회의실에서 정일윤 대표(식초연구가·위더스위즈덤센터)를 초청한 공무원 식초 이해 교육을 진행했다.

정일윤 대표는 사)한국천연발효식초 생산자협회 이사장 사)한국전통발효식초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위더스위즈덤센터 대표로 호서대, 이화여대 등 다양한 대학교 평생교육 과정에서 식초 특강을 하고 있다.

정일윤 대표는 "식초 시장은 다른 발효식품과는 달리 선도지역이 없는 초기 산업형태로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춘다면 고창 식초가 세계적인 명품 식초로 발돋움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추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분자 식초는 복분자 원물의 소비속진과 더불어 13배 이상의 부



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돼 한반도 농생명 식품수도를 이끄는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고창군은 2019년 식초문화도시 고창을 선포했다. 지난해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고창 복분자·식초산업특구'로 지정되면서 복분자식초 가공식품 개발, 유통체계 현대화와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